

몸과 문맥

이 주 향
수원대 교수

영원한 것, 존재 그 자체인 완전성에 대한 추구는 영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소멸을 향해 치닫기까지 하는 존재자를 불완전한 자로 억압한다. 역사적으로 전체의 이름이 강조된 곳에서 몸은 반드시 억압의 대상이었다. 인간이 개인인 이유인 특정한 몸은 개인의 개성이 불필요한 곳에서 늘 악의 근원으로서 드러나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몸의 한 속성인 걱정과 욕망은 신학적으로는 죄였고, 철학적으로 선이 아닌 반윤리의 근원이었으며, 사회학적으로는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 모두는 특정한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해야 하는 사회의 메카니즘과 관계가 있으며 그 메카니즘이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일부일처제는 “하늘에는 해님도 하나, 달님도 하나, 내 마음엔 님도 하나” 식의 사랑윤리를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축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절대절명의 토대로서 보호해왔다. 성윤리, 사랑윤리, 결혼윤리는 모두 이 토대에서 형성되었다. 결혼의 터널을 통과해 일부일처제의 가족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이나 사랑은 슬픔이었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나 이루지 못한 사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들이 오늘날은 고정관념이 되어 서서히 혹은 혁혁하게 깨어져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래의 글은 드라마 애인신드롬을 분석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는 짧은 문화읽기이다.

I. 이데아는 억압이다

순수한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는 존재 그 자체가 있을까? 플라톤의 고민이었다. 그리고 생성과 소멸의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문제이기도 했다.

특정한 방식으로 물음이 일어날 때 이미 그 물음 속에는 해답의 방식이 들어 있다. 물음의 내용에는 물음이 제기되는 문맥이 들어 있고 물음이 일어나게 했던 그 문맥은 물음이 대답

되는 방향을 정해준다.

영원한 것, 존재 그 자체인 완전성에 대한 추구는 영원하지도 못할 뿐더러 소멸을 향해 치닫기까지 하는 존재자를 불완전한 자로 억압한다. 영원이 완전이라면 시간성은 불완전이고, 영혼이 존재의 본질이라면 몸은 존재의 결여가 된다. 이데아를 인식하는 고결한 영혼이 선과 관계가 있다면 지상에서 노는 몸은 선에 의해 다소러져야 할 악이 된다.

역사적으로 전체의 이름이 강조된 곳에서 몸은 반드시 억압의 대상이었다. 인간이 개인인

이유인 특정한 몸은 개인의 개성이 불필요한 곳에서 늘 악의 근원으로서 드러나서는 안되는 것이었다. 몸의 한 속성인 걱정과 욕망은 신학적으로는 죄였고, 철학적으로 선이 아닌 반윤리의 근원이었으며, 사회학적으로는 통제의 대상이었다. 그 모두는 특정한 방식으로 개인을 통제해야 하는 사회의 매카니즘과 관계가 있으며 그 매카니즘이 효율적으로 굴러가게 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II. 하늘에는 달도 하나 내 마음엔 님도 하나

몸의 억압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성의 억압이다. 특정한 사회형태는 그 형태에 적합하게 특정한 방식으로 성을 통제해왔다. 그럼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키는 이데올로기들, 즉, 관습과 윤리를 재생산해온 것이다.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결합한 일부일처제는 “하늘에는 해님도 하나, 달님도 하나, 내 마음엔 님도 하나”식의 사랑윤리를 요구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축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을 절대절명의 토대로서 보호해왔다. 성윤리, 사랑윤리, 결혼윤리는 모두 이 토대에서 형성되었다. 결혼의 터널을 통과해 일부일처제의 가족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성이나 사랑은 슬픔이었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나 이루지 못한 사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습들이 오늘날은 고정관념이 되어 서서히 혹은 혁혁하게 깨어져가고 있다. 관습과 고정관념의 차이는 무엇일까? 특정한 관습이나 그 관습을 둘러싸고 만들어지는 윤리규범들이 깨어져야 할 고정관념이 되는데는 사회구성체의 변화가 있다. 요즘 하나의 징후로서 나타나는 것은 “하늘에는 해님도 하나, 달님도 하나, 내 마음엔 님도 하나”식의 일부

일체제가 요구하는 성윤리, 사랑윤리, 결혼윤리가 깨져도 되는 고정관념이 되어 급격하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하여 [에인 신드롬]도 그와 같은 현상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후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에인] 뿐이 아니다. 김원우의 [모노가미의 새 얼굴]에서 주인공 나는 일부일처제의 희생양이다. 유재용의 [그들만이 꿈꾸는 세상]은 다부다처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더이상 우리 사회가 든든한 가장과 정숙한 현모양처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가족 제도에 기대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런 소설들이 설득력을 갖는 공간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사회의 해체와 관계가 있다. 그런 곳에서 ‘에인 신드롬’은 의미를 가진다.

III. 가족제도와 [에인]

[에인]은 막을 내렸지만 ‘에인 신드롬’은 남아 있다. 일개의 드리마가 국감의 도마에까지 올랐으니 대단한 일이다. 불륜을 미화시키는 불륜 상품이라며 “폐놀보다 심각한 공해”라고 도덕감으로 무장된 어떤 의원은 [에인]을 단죄했었다. 그것은 에인에 대한 공안정국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에인 무죄”를 선언하고싶은 목소리도 만만찮을텐데 그 소리는 미미했다. 그들은 알고 있는듯 했다. “에인 무죄 선언”은 부도덕하다는 평가를 불러들인다는 것을. 대신 그들은 화면 앞에 모여 들어 조용히 [에인]을 보면서 시청율을 올리는데 한몫했다.

[에인]에 대한 준엄한 비판은 유부남, 유부녀의 불륜을 가차없이 단죄, 건전한 가정에 몰고올지도 모를 휘오리를 막아보겠다는 가부장적 가정지상주의의 발상이었다. 그렇다면 [에인]에 대한 공감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의

남편과 아내들에게 확인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남편은 돈벌어 오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내에게도 섬세한 감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 기혼의 남녀들이 애인을 갖고 싶어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현상적 사실은 일종의 정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혼자들의 '애인 만들기'에 대한 찬,반 양론을 묻는 작업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기혼남성들의 45%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해서, 기혼여성의 62%가 남자 친구를 갖고 싶다고 대답했다고 해서 그것이 [애인]의 영향이라고는 생각할 수는 없다. 그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가 장희빈과 남인 정권을 몰락시켰다고 말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거에 한 칼에 불륜으로 매도되었던 일이 어찌서 한 순간의 기분이 아니라 섬세하고 가슴떨리는 사랑이 되는가,에 대한 사회구성체적 이해이다. 어찌서 '불륜'이 진지한 사랑이 되어 공중파를 탈 수 있었을까? 물론 사람들이 부도덕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인 답이 아니다.

[닥터지바고]를 보았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전쟁터에서 열정적인 라라와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지바고는 라라를 떠나 정숙한 아내 토나에게로 돌아온다. 전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은 열정은 잠시이고 정숙한 아내가 있는 가정은 영원해서 일까? 글썸, 결국 가정을 선택하는 주인공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랑이 한 순간의 기분이라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가족제도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곳에서 사랑을 선택할 경우 여지껏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뿐더러 자신의 설 자리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전통사회나 제조업이 주가 되는 자본주의 사회는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사회였다. 가족이 사회, 경제적인 기본 단위가 되어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가족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

다. 경제적인 축인 가장과 정숙한 현모양처가 필요조건인 가족제도가 사회의 기본단위인 곳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사랑'을 선택할 경우 여지껏 함께 살아온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입힐 뿐더러 자신의 설 자리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평생 이마에 주홍글씨를 붙이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데 주홍글씨는 사회속에서의 유배지였기 때문이다.

이 때 특정 사회의 경제적 기본단위인 가족 공동체는 가부장인 남자의 가정이었다. 모든 가족이 기대있는 경제적인 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가정은 누가 지켰나?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 자본의 사회적 축적이라는 대명제를 성취하기 위해 사회는 남자의 노동력에만 임금을 지불해왔고 그리하여 사회는 공식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나의 남자에게 한 여자를 만능비서붙이듯 붙여주었다. 물론 무임이었다. 여자는 가사, 섹스, 육아를 무임으로 담당해왔고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할 기회를 차단당함으로써 '노는 여자'로 비하되어 갔다. 그 노는 여자들은 가정 밖에서는 놀 자리도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키는 남자의 가정어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묻지도 못한 채 우연히 서게 된 그 자리를 삶의 출발점으로서 받아들여야 했다.

사실 드라마 [애인]의 설득력은 비대칭적인 남녀관계를 축으로 하는 가부장적 가정의 해체와 관계가 있다. 이 드라마가 기존의 드라마와 다른 이유는 불륜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가정이 있는 여성의 사랑을 소재로 했다는 점이다. 유부남과 처녀 혹은 창녀의 불륜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해서 새로울 것이 없는 소재였다. 대체적으로 유부남과 사랑을 하는 처녀나 창녀의 사랑의 끝은 어디였나? 여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기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남자가 없는 여자는 사랑의 주체지만 남자

가 있는 여자는 사랑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여자는 한번도 사랑의 주체로 드러난 적이 없다. 다만 여자는 여자를 가정의 울타리로 끌어줄 수 있는 남자, 진짜 주인인 남자를 찾도록 요구되는 언제나 객체인 존재였다. 다른 남자가 생겼을 때 기왕의 남자가 ‘애인’을 포기하는 것은 여자에 대한 예우라기보다 여자의 주인에 대한 예우였던 것이다.

사실 경제적으로 주체가거나 경제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지 않고 그것이 토대가 되는 다른 삶의 주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애인]신드롬은 일시적인 신드롬이 아니라 사회구성체가 달라지고 있음에 대한 징후로 읽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보사회의 문턱에서 여성이 경제적인 주체로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기존의 윤리나 도덕이 고정관념이 된 사회분위기를 반영한다.

손끝으로 세계를 보는 사회, 더이상 완력이 생산력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 여자가 경제력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 때 가족공동체의 의미는 대단한 변화를 겪을 뿐더러 꺾어야만 한다. 남자 뿐만 아니라 여자도 경제력을 가지면 경제의 기본단위가 바뀌게 된다. 경제의 기본단위가 남자의 경제력을 주축으로 형성되어왔던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될 때 가족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개념은 지워질 수 밖에 없다. 이 때 가족이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은 경제공동체로서가 아니라 정서공동체로서이다.

IV. 경제의 최소 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개인이 된 사회에서

요즘 ‘자아실현형’의 여성이라는 말이 있다. 사랑보다는 일을 선택하고 때로는 사랑보다 우정을 선택하기도 하는 신세대여성을 지칭한다

고 한다. 이 자아실현형의 여성의 중요한 특징은 첫째, 성실하게 자기 일을 수행할 것, 둘째, 사랑이나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자아실현형의 여성의 개념에서 탈락되는 여성들이 있다. 전업주부가 그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남편이나 아이를 돌보는 일은 사람을 기르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그 일은 직장에서 누군가를 기르는 일 만큼이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일보다도 더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회는 그 여성들을 자아실현형의 여성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왜일까? 그것은 가정 내에서 사람을 기르고 돌보는 일에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경제력을 재생산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이 경제력을 갖게 되면서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의미는 희석된다. 이것은 가정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가 여성의 자아를 실현할 공간을 가정으로 한정시켰을 때 여성에게 남성을 축으로 하는 결혼은 필수였다. 가정 이외의 공간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여성은 인내와 희생을 미덕으로 마음을 억압하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을 억압함으로써 가정을 지켰다.

그러나 가정이 선택이 될 수 있었을 때 마음이 맞지 않아 몸이 억압되면 참는 것이 아니라 헤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전통사회가 요구하는 인내라는 이데아를 실현해야 했기에 자기의 정서라는 몸을 억압하면서 살아왔던 여성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가정이 과연 지킬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물론 이 물음은 경제력의 주체가 되면서 여성이 감성의 영역에서도 홀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반영한다. 홀로 설 수 있게 된 여성들은 가정을 둘러싼 기존의 관습이나 윤리에서 억압적 성격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약자 시절, 약자에게 강요되었던 관습에서 억압적인 요소를 찾아낼 수 있게 된 이유는 그런 억압을 뚫고나올 힘을 갖게 된 현실을 반영한다. 역으로 말하면 사랑, 결혼 등의 문제에서 선택권을 가지기 위한 필요조건은 여성들이 홀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기반 위에서만 몸의 억압을 발견하는 일이 몸의 해방에의 길이 되지 않을까?

참 고 문 헌

정대현, 원초적 맞음. 한국철학자 대회보 1992.

정대현, 맞음개념의 서양적 구성 철학 1995 가을.

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Polity, 1991, Ch.5.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 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6.